

A. 되블린의 소설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과 구약성경 「욥기」

송성희*

목 차

서론

1. 욥과 프란츠 비버코프의 성품
 - 1.1. 욥의 성품
 - 1.2. 프란츠 비버코프의 성품
2. 참된 위로자가 없는 현실
 - 2.1. 욥의 경우
 - 2.2. 프란츠 비버코프의 경우
3. 절대자와의 대면을 통한 인식과 회개
 - 3.1. 욥의 경우
 - 3.2. 프란츠 비버코프의 경우

결론

서론

되블린 Alfred Döblin은 이 작품의 제목을 처음에는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Berlin Alexanderplatz」이라고 했다. 되블린은 사람이 아니라 1920년대 말기의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을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운명을 지닌 개인”¹⁾이 등장하는 소설에 익숙해 있던 당시의 관행을 무시할 수 없었던 출판사 측의

* 제주대학교 독일학과 교수

1) Peter Bekes, Alfred Döblin: Berlin Alexanderplatz, S. 23: “die Einzelpersönlichkeit mit ihrem besonderen Schicksal”.

권유에 따라 되블린은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프란츠 비버코프의 이야기 Berlin Alexanderplatz. Die Geschichte von Franz Biberkopf」라는 제목으로 바꾸었다.²⁾

이렇게 제목이 보완되어 발표된 이 작품을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긍정적으로”³⁾ 받아들였다. 이는 대도시를 주인공으로 삼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특수한 운명의 한 사나이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결과였다.⁴⁾ 다만 예외적으로 독일공산당 진영에서는 “알렉산더 광장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완전히 일그러진 모습”⁵⁾을 그렸다고 혹평했다. 바로 이 경우를 제외하면, 이 작품은 발표 당시 비평계나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이는 독일의 문학사에서는 지극히 보기 드문 예라고 한다.⁶⁾

문학시장에서의 성공은 작품의 미학적인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일반 독자들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모더니즘 문학의 진수들도 담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인정받고 있다.⁷⁾

그런데 이 소설에는 프란츠 비버코프를 중심으로 한 핵심줄거리 외에도 수 많은 에피소드와 줄거리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구약성경의 「욥기」는 직접 이 소설에 인용되기도 했고, 또한 이 소설의 주인공 프란츠가 절대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소설을 「욥기」와 비교해 보는 이 논문을 쓰게 된 것은 이 소설의 난해성에도 관계가 있다. 사람들이 흔히 “치를 떨면서”⁸⁾ 이

2) Ebd. S. 23.

3) Bernd Matzkowski, Alfred Döblin: Berlin Alexanderplatz, S. 128: “überwiegend positiv”.

4) 이 작품이 발표 당시에 거둔 큰 성공은 독자들의 오류 때문이라고 본 마르티니의 견해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Vgl. Fr. Martini, Das Wagnis der Sprache, S. 339.

5) Ebd., S. 128: “ein völlig verzerrtes Bild der Menschen, die um den Alexanderplatz herum leben”.

6) Peter Bekes, a. a. O., S. 98.

7) Peter Bekes, a. a. O., S. 98 참조.

소설의 작가를 떠올릴 정도로 이 소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사실 이 소설은 고대의 신화와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⁹⁾

되블린의 이 소설을 읽기가 이렇듯 쉽지 않은 것은 되블린의 쓰기방식과도 관계가 있다. 되블린은 약 6개월에 걸쳐 완성된 한 가족소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작품은 내가 여지껏 쓴 작품 중 연구와 자료수집 등의 절차 없이 쓴 유일한 소설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 소설은 개인적인 체험이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⁰⁾

이 말은 개인의 체험을 개인의 체험 수준에 머물게 하고 싶을 때는 글을 쉽게 쓴다는 뜻인데, 개인의 체험이지만 그것을 많은 독자들의 간접체험이 되게 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쉽게 쓰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은 1927년부터 1929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처음부터 “플과 가위로”¹¹⁾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¹²⁾ 따라서 당시의 현실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작품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 동원한 온갖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이 소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그 범위를 좁혀서나마 이 소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근거에 깔고 있다. 이 소설을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역시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구약성경 『욥기』와 비교해보면 부분적으로나마 이 소설의 내용

8) Robert Minder, *Begegnungen mit Alfred Döblin in Frankreich*, TEXT+KRITIK, Heft 13/14 (1972), S. 60: “als Gift und Galle speiend”.

9) 이 소설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그리스도 신자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음. Dieter Baacke, S. 36f. 참조.

10) Alfred Döblin, zitiert nach: R. Minder, *Begegnungen mit Alfred Döblin in Frankreich*, S. 61: “es ist der bisher einzige Roman, den ich ohne Studien, Stoffsammlung etc. schrieb. Aus einem simplen Grunde: es ist und sollte ein persönliches Erlebnis bleiben.”

11) “가위와 플로 Mit Schere und Kleister” 이루어진 이 소설의 쓰기과정에 대하여는 J. Stenzel, *Mit Schere und Kleister*, S. 39-45를 참고할 것.

12) Peter Bekes, a. a. O., S. 20.

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죽음 der Tod” (387)¹³⁾의 정체와 그 역할 문제는 「욥기」와의 비교를 통해서야 비로소 밝힐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성경, 특히 「욥기」와 「요한계시록」의 창녀 바빌론에 대한 이해는 이 소설을 다루는 문학수업에서도 전제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¹⁴⁾도 비교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미리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과 뉘블린의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프란츠가 유사한 인물이라는 점이 쉽사리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욥은 순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었음이 서두에 비교적 상세히 이야기되고 있지만, 프란츠는 애인을 구타하여 죽게 한 죄로 4년 형기를 마치고 출감한 전과자가 되는 엄청난 불행을 겪기 전에는, 그러니까 “중화상을 입은 schwer gebrannt”(37) 사람이 되기 전의 프란츠의 장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프란츠와 욥을 비교한다는 것이 엉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대도시 베를린,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베를린 동부의 알렉산더 광장의 “범죄로 물든”¹⁵⁾ 현실을 고려하면 프란츠를 욥과 비교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 욥과 프란츠 비버코프의 성품

13) 이 논문의 발호 속에 제시되는 숫자는 Alfred Döblin, Berlin Alexanderplatz. Die Geschichte vom Franz Biberkopf, dtv 1990 (29. Aufl.)의 페이지를 나타냄.

14) Peter Bekes, a. a. O., S. 110.

15) A.D., Mein Buch 'Berlin Alexanderplatz', S. 413: "von Kriminalität unterwühlt". 자신의 이 소설에 대하여 1932년에 쓴 이 글에서 뉘블린은 프란츠 개인보다는 범죄로 물들어 있는 사회를 문제삼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세상은 두 신의 세계이다. 이 세상은 건설의 세계인 동시에 파괴의 세상이다. Diese Welt ist eine Welt zweier Götter. Es ist eine Welt des Aufbaus und des Zerfalls zugleich."라는 생각이 이 소설의 사상적 기저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신경정신과의사로서 "범죄자 보호관찰소 Beobachtungsstation für Kriminelle" 업무를 수행하던 초기에 지녔던, "사회가 범죄로 물들어 있다 Die Gesellschaft ist von Kriminalität unterwühlt"는 생각과 연결되어, 사회가 범죄로 물들어 있는 것은 이 세상이 건설과 파괴의 두 신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에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1.1. 욥의 성품

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욥 1:8)

이렇게 착실한 욥의 고통은 여호와와 욥이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욥할 것이라고 참소하는 사단 때문에 시작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욥 1:12)

그리하여 욥은 모든 소유물을 약탈당하고 종들과 자녀들이 죽게 된다(욥기 1 : 13-19). 그러나 욥은 오히려 “경배하며”(1:20), 여호와 의 이름을 “찬송”(1:21)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된 땅하지 아니하니라”(1:22)

그러나 욥의 뼈와 살을 치면 주를 욥할 것이라고 계속 참소하는 사단에게 여호와께서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욥을 사단에게 내어 준다.(욥 2:3-6)

이렇게 하여 온 몸에 악창이 나서 죽을지경인 그에게 아내가 “하나님을 욥하고 죽으라”(욥 2:9)며 욥을 더욱 괴롭힌다. 그 정도로 악창이 심했지만 여전히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한다”(욥 2:10).

1.2. 프란츠 비버코프의 성품

프란츠는 “시멘트 일꾼이자 짐꾼”이었는데, “해묵은 우발 사건들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석방되어 다시 베를린에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will anständig sein” 사람이다.

“이 책은 예전에 베를린에서 시멘트 일꾼이자 짐꾼이었던 프란츠 프란츠에 관한 보도이다. 그는 해묵은 돌발 사건들 때문에 들어 앉게 된 형무소에서 석방되었는데, 다시 베를린에 정착하여, 성실하게 살고자 한다.”

Dies Buch berichtet von einem ehemaligen Zement- und Transportarbeiter Franz Biberkopf in Berlin. Er ist aus dem Gefängnis, wo er wegen älterer Vorfälle saß, entlassen und steht wieder in Berlin und will anständig sein.”(7)

감옥에 갇히기 전의 프란츠는 욥과는 달리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귀여운 재봉사 eine kleine Schneidermamsell” 이다 Ida를 “창녀 Hure”로 만들어 기생생활을 했고(31), “반감을 사기 쉬운 외모의 거칠고 상스러운 남자 ein grober, ungeschlachter Mann von abstoßendem Äußern”(36)이다.

새로 생긴 이다의 애인 때문에 싸우다가 그녀에게 치명상을 입힌 죄로 4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베를린에 다시 정착하고자 하는 프란츠는 “또 다시 엄청난 벼락 noch einen ordentlichen Schlag”(34)을 맞는다. 프란츠는 “공갈, 폭행 및 상해치사 죄로 wegen Bedrohung, tätlicher Beleidigung und Körperverletzung mit tödlichem Ausgang”(34) 처벌을 받은 자로서 “일반 대중의 안녕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요시찰 인물 eine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Sittlichkeit gefährliche Person”(34)이기에, 베를린과 그 주변 지역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베를린 경찰국장의 공문서가 그에게 전달된 것이다.¹⁶⁾

그러나 프란츠는 “천성이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천성이 착한 사람이다 (...) 게다가 그는 화상을 입은 아이여

16) 프란츠 비버코프의 생활이 주로 술집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가 우연히 친구를 사귀는 곳도 술집이고, 그가 경찰에 체포되는 곳도 술집이다. Th. Siepman, Berlin Alexanderplatz, S. 77 참조.

서 불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석방되어 세상에 나아갈 때, 착실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법규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수하기로 다짐한다.”¹⁷⁾

그러니까 프란츠도 읍처럼 “중화상을 입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의 세계인 동시에 파괴의 세상 eine Welt des Aufbaus und des Zerfalls zugleich”¹⁸⁾이기에 “범죄로 물들어 있는 von Kriminalität unterwühlt”¹⁹⁾, “한탄이 끊이지 않는 곳 Jammernest”(76)에서 기존의 법질서를 준수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려는 각오를 다진 착한 성품의 사람이다.

2. 참된 위로자가 없는 현실

2.1. 읍의 경우

읍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읍의 친구 세 사람”(읍 2:11)이 먼 길을 달려 찾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칠일칠야(七日七夜)” 동안 위로의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고통은 죄의 결과임을 믿는 당시의 신학이론을 대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었다.²⁰⁾

이에 실망한 읍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읍 3:1-10), 죽음을 사모하며(읍 3:11-26)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읍에게 세 친구는 위로의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당시의 지식과 자신과 선조들의 경험에 의거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고 회개할 것을 요청한다.(읍 5:27, 11:13-20)

읍과 세 친구들 사이의 논전은 각각 3차에 걸쳐 펼쳐지는데, 읍의

17) Alfred Döblin, Mein Buch, S. 413: “Er ist von Natur gut (...) und obendrein ist er ein gebranntes Kind und fürchtet das Feuer. Und wie er in die Welt geht, siehe da, er will anständig sein, er will die Gesetze dieser Welt, wie er sie sich denkt, ehrlich und treu ausführen (...)”.

18) Alfred Döblin, Mein Buch, S. 413.

19) Ebd.

20) 김용조, 구약성서대강해, 성청사, 1962, 597쪽, 610쪽 참조.

고통은 욥의 죄 때문임을 단정하고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려는 세 친구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논전이 거듭될수록 욥의 입은 거칠어지며, 사회에 극악한 죄인이 많음에도 그들을 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다(욥24:1-25). 결국 욥은 정조나 공정한 일처리, 권력이나 탐욕 등 모든 면에서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하나님과 대면할 자신이 있다고까지 강변하게 된다(욥31:1-40).

결국,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폐한 자”(욥 6:14)인 욥은 목마른 자의 갈증을 더욱 더 심하게 하는 여름이면 말라버리는 시냇물과도 같은 세 친구들과의 논전을 통해 오히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욥 38:2)가 되고 만다.

2.2. 프란츠 비버코프의 경우

프란츠도 욥처럼 착실하게 살기로 다짐을 하고 베를린 동부의 알렉산더 광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애인 리나 Lina의 숙부이자 친구인 뤼데르스 Lüders에 의해 뒤통수를 얻어맞는다.

행상을 하던 중 어느 과부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은 프란츠가 너무 좋아서 사랑삼아 친구 뤼데르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는데, 프란츠를 도와주었던 이 과부의 집에 뤼데르스가 찾아가 강도짓을 함으로써 프란츠는 좋은 단골고객을 잃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뤼데르스는 바로 “죽음 der Tod”²¹⁾이 프란츠의 눈을 뜨게 하여 그로 하여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낸 자였다.

“내가 네게 뤼데르스를 보냈을 때 너는 눈을 뜨지 않았어. 주머니칼처럼 눈을 꼭 감아버리고는 술을 퍼 마셨지. 오로지 술만 마셨어.”

21) 9권 4장에서 “뤼데르스가 너를 속였을 때, 나는 처음으로 너와 대화를 나누었다. Als Lüders dich betrog, hab ich zum ersten Mal mit dir gesprochen(...)”, “나는 생명이다 Ich bin das Leben”(388)라고 밝히고 있는 이 “죽음”은 성경의 ‘하나님’으로 바꾸면 오히려 뜻이 쉽게 이해되는 대목도 이 소설에는 많다.

Als ick dir Lüders schickte, haste die Augen nich aufgemacht, biste zusammengeklappt wie ein Taschenmesser und dann haste gesoffen, Schnaps und Schnaps und nischt als Saufen.(391)

그러나 프란츠는 뤼데르스에게 당한 것을 “벌 die Strafe”(97)로 생각하며, 감옥에서 쫓겨나와 벌을 받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렇게 프란츠는 이성의 눈을 뜨기는커녕 이성을 마비시키는 술만 퍼마셨다. 그 이유는 착실하게 살고자 했던 자기를 친구로 여겼던 뤼데르스가 “속였기 betrogen”(391)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뤼데르스는 “사기꾼 ein Gauner”(103)이었다. 바로 이런 자를 프란츠는 “분별있는 사나이 ein verständiger Mann”(97)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프란츠는 자신의 이런 문제는 알지 못하고 친구와 세상을 원망하며 술독에 빠져 지내게 된 것이다.

“... 너는 눈을 뜨지 않았던 거야 ... 사기꾼이나 사기행각은 비난하면서도 인간을 보려 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하지 않은거지.”

Ich sag, du hast die Augen nicht aufgemacht, du krummer Hund! Schimpfst über Gauner und Gaunerei und kuckst die Menschen nich an und fragst nich, warum und wieso.(391)

프란츠는 눈을 뜨기는커녕 눈을 더 꼭 감아버리고 인간을, 세상을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인간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던 프란츠는 또 라인홀트 Reinhold같은 악당을 친구로 삼게 된다. 그와 함께 소녀인신매매를 하고, 그것이 나쁜 짓임을 알고 난 뒤에는, 이런 자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까지 하여 라인홀트의 양심을 부추겼다.

그 결과 프란츠는 라인홀트에 의해 달리는 자동차에서 떠밀려 뒤따라오던 자동차에 오른팔을 잃게 된다. 악당들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자기는 함께 하지 않겠다, 자기는 착실한 사람이다 er macht nicht mit, er ist ein anständiger Mensch”라고 말하는 자신의 “거드름피

우는 태도 Dicketun” 때문에 프란츠는 오른팔을 잃은 것이다.(316)

이번에도 프란츠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세상과 세상사람들을 제대로 보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팔을 앗아간 원수 라인홀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라인홀트 앞에서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내 몸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해.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놈에게 보여주지. 내 이름은 프란츠 비버코프다.”

(...) mir geht es gut, an mich kann nichts ran, das sollst du sehen, wie ich dastehe, mein Name ist Franz Biberkopf.(298)

그래서 프란츠는, “자기 마누라 seine Braut”(305) 사랑을 하고 다니는 프란츠의 콧대를 꺾기 위해 미이쎈 Miese를 빼앗을 생각을 하고 있던, 라인홀트에게 새로 사귀는 미이쎈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직접 보여 주기 위해 침실로 라인홀트를 끌어들인다.

한편 미이쎈은 “사랑하는 프란츠 süßer Franz”(317) 때문에, 그의 오른팔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라인홀트에게 접근했다가, 결국은 라인홀트의 손에 살해된다.

미이쎈을 기다리던 프란츠는 살인죄를 덮어씌우려는 라인홀트의 꼬임에 빠져 “15분만에 in einer Viertelstunde” 짐을 꾸려 잠적한다.(339) 잠적 중이던 프란츠는 신문을 통해서 미이쎈이 살해된 것임을 알게 된다.

“이제 분명해졌어. 그녀는 내게서 달아난 게 아냐, 누군가가 그녀를 살해한 거야.”

(...) jetzt is es raus, die is nich weg von mir, die hat einer umgebracht, (...) (345)

라인홀트가 미이쎈을 살해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도 처음에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지 못한다.

“그놈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는 모른다.”

Er weiß nicht, warum der das gemacht hat.(346)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야 비로소 프란츠는 상황을 파악하고, 오른팔을 잃게 된 것도 라인홀트 때문임을 이제야 비로소 밝히며, 라인홀트가 미이체를 죽인 것은 자기를 굴복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팔 이야기를 이제야 알게 된 헤르베르트 Herbert는 미이체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더라면 그녀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며 프란츠를 책망하지만, 프란츠는 거듭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내 잘못이 아냐.”

“Ich bin nicht schuld dran.”(347)

라인홀트에 의해 미이체가 살해당한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못된 라인홀트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수하기 위해 라인홀트를 찾아나섰지만 가명으로 감옥에 숨어버린 뒤여서 찾을 수 없게 되자 프란츠는 자결을 결심한다.

“내가 라인홀트를 붙잡을 수 있다면, 나의 분노는 누그러질텐데, 그놈의 멱살을 잡아 목을 부러뜨려 죽일 수 있을텐데, (...) 그러나 라인홀트를 죽일 수 없으니 내가 자결하겠다.”

Wenn ich den Reinhold könnte fassen, dann wäre meine Wut vorbei, dann könnte ich ihn beim Genick fassen und ihm das Genick brechen und ihn nicht leben lassen, (...) Weil ich aber Reinhold nicht kann töten, bring ich mich selber um.(358)

자살을 결심한 프란츠는 끝장이다.

“(…) 프란츠 비버코프는 끝장이다. 끝장.”

(...) mit Franz Biberkopf ist es aus und Schluß.(359)

그러나 죽기 전에 그의 정신이 먼저 망가진다.

“그 자신이 시체가 되기 훨씬 전에 그의 정신이 망가졌다.”

(...) lang schon war sein Geist zerbrochen, eh er selber eine Leiche. (362)

그런데 그는 정신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추적, 추적, 저주스러운 추적, 놈들이 나를 끊임없이 추적해왔다. 나는 항상 최선을 다 했지만, 이제 나는 끝장이 났다. 그러나 내 잘못은 아니다. (...)]”

[Die Jagd, die Jagd, die verfluchte Jagd, die haben mir immerfort gejagt, ich hab immer mein Bestes getan, ich bin jetzt in den Dreck gefahren und bin nicht dran schuld. (...)](363)

프란츠는 자신이 “저주스러운 개들 die verfluchten Hunde”(362)에게 쫓겨 도망을 치다가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어서 끝장이 난 것이라고, 따라서 자기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미 프란츠의 정신이 망가진 상태이기에 이 대목은 괄호 속에 제시되고 있다.

마침내 그는 경찰의 “불심검문 freie Besichtigung”(365)이 벌어지고 있던 술집에 들어가서 두 자루의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문중인 경찰과 싸우기까지 하여 체포된다. 그는 “프라이엔발데에서 발생한 매춘부 에밀리에 파르준케 살인사건 die Mordsache mit der Prostituierten Emilie Parsunke in Freienwalde”에 연루된 자, “살인과 매춘방조 전과자인 프란츠 비버코프 der wegen Totschlag und Zuhälterei vorbestrafte Franz Biberkopf”임이 판명되어 구속된다.(370)

기존의 법질서를 준수하며 착실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프란츠였지만, 따뜻한 위로자가 없는 냉엄한 현실에 좌초하여 다시 또 감옥에 갇힌 것이다.

3. 절대자와의 대면을 통한 인식과 회개

3.1. 욥의 경우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을 강변하는 욥의 말에 세 사람이 입을 다물게 되자,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한 욥과 “욥을 정죄”한 욥의 세 친구들 모두를 꾸짖으며 엘리후가 등장한다.

이 엘리후는 “욥이 원하는 증보자(仲保者)”²²⁾로서 하나님과 인간 욥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엘리후는 인간 욥의 무죄 주장이 잘못이라는 점(욥 33:6-13),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공정한 것이기에 인간이 비난할 수 없다는 점(욥 34:1-37) 등을 설파하고, 욥의 경건하지 못한 언사를 비난하고(욥 35:1-8), 하나님의 대섭리(大攝理)에 복종할 것을 권고한다(욥 37:14-22).

엘리후의 가르침을 말 없이 경청하고 있던 욥에게 마침내 전능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에서”(욥 38:1) 말을 한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욥 40:2)는 하나님의 물음에 욥은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오리까”(욥 40:4)라고 대답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았던 욥이었지만, 증보자 엘리후를 통해 순화됨으로써, 이제는 자신이 “미천한” 인간임을, 자신도 “여인에게서 난 자”(욥 15:14)로 의롭지 못함을 고백한 것이다.

이런 욥에게 여호와께서는 다시 “폭풍가운데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욥 40:6)고 욥을 거듭 책망한다. 인간인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욥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이 “無智한 말로” 범한 죄를 깨우치고 회개한다.

22) 김용조, 같은 책, 667쪽; 욥 9:32-33 참조.

“내가 주께 대하여 풍문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사옵나다만, 지금은 눈으로 직접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잘못을 철회하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하나이다.”

Nur durch Gerüchte wußte ich von dir: jetzt aber hat mein Auge dich gesehen. Drum leiste Widerruf ich und bereue auf Staub und Asche!²³⁾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조금 전 엘리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미천한 인간의 의롭지 못함에 대하여 충분히 들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한 주장과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에 대한 의심의 말을 모두 철회하고 회개한 것이다.

3.2. 프란츠 비버코프의 경우

위에서 보았듯이 정신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프란츠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프란츠의 사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프란츠를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폭풍의 거인들 die Gewaltigen des Sturms”(378)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프란츠는 정신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besinnungslos”(386) 누워만 있는 것이다. 서술자도 한없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가 밖에 있는 그들 곁에 좀 더 가까이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는 그들을 느끼게 될 것이고 미이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될텐데. 그렇게 된다면 그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의 양심이 깨어날텐데, 그러면 그는 일어 날 것이고, 좋아질텐데.”

(...) er hört nicht, was sie rufen, und würde er näher bei

23) Die Bibel, S. 696. 이는 욥기 42장 5절과 6절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독일어성경을 인용한다.

ihnen draußen sein, dann würde er sie fühlen und würde Miese hören schrein. Dann ginge sein Herz auf, sein Gewissen würde erwachen, und er stünde auf, und es wäre gut.(...) (378f.)

이런 프란츠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죽음”의 “아름다운 노래 das schönes Gesang”를 듣는다.²⁴⁾

잠자코 듣고 있던 프란츠에게 “죽음”은 “나는 생명이고 참된 힘이다 Ich bin das Leben und die wahre Kraft”(388)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만, 프란츠는 죽음을 간청한다.

“제발 죽여달라.”

Mach doch ein Ende.(390)

그러나 “죽음”은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은 “도끼 ein Beil” (390)일 뿐이고, 다른 모든 것은 프란츠의 손에 달려 있음을 밝히며, 지금까지 프란츠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밝힌다.

그래도 여전히 프란츠는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는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Ich weiß ja nich.”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391)

마침내, “죽음”은 “넌 끝장이다. mit dir is aus.”(391)라고 선언하고, 세상을 모르는 프란츠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한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와는 다른 사람. 너보다는 머리가 좋은

24) 이 노래를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 서술자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프란츠는 이 노래를 부르는 자를 “죽음”이라고 생각한다(388). 그래서 서술자도 이 노래를 부르는 자를 “죽음”이라고 부른다(387). 그러나 “폭풍의 거인들”이나 “사악한 바빌론 die böse Babylon”(388)은 이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자기들보다는 권세가 높은 자, 곧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기에 조용히 경청한다. “폭풍의 거인들은 이제 잠잠하고, 다른 노래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모두 그 노래와 그 노래를 부르는 자를 안다. 그 사람이 그의 음성을 높이면, 그들은 언제나 조용해진다. 세상에서 가장 난폭한 자들인 그들조차도.”(Die Sturmgewaltigen sind jetzt still, es hat ein anderes Lied begonnen, das Lied kennen sie alle und den, der es singt. Wenn der seine Stimme erhebt, sind sie immer still, sogar die, die die Ungestümsten auf der Erde sind.)(387)

사람, 너보다는 덜 건방진 사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모든 것이 설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설탕과 오물로 된 것임을, 그리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임을 아는 사람이다.”

Die Welt braucht andere Kerle als dir, hellere und welche, die weniger frech sind, die sehen, wie alles ist, nicht aus Zucker, aber aus Zucker und Dreck und alles durcheinander.(392)

이어서 “심장 Herz”을 내놓으라고 하는 “죽음”에게 프란츠는 시간여유를 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한다.

“잠깐만.”

Ein bißchen.(392)

이제 프란츠는 “죽음의 말 das Wort des Todes”을, “돌같은 돌 ein steinerner Stein”을 입에 넣고 굴린다(393). 이는 “죽음”의 말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겸허하게 반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프란츠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최후의 “작은 한 걸음 ein kleiner Schritt”을 내딛는다.(393)

이렇게 해서 프란츠는 뤼데르스나 라인홀트를 친구로 여기고 상대한 것이 “잘못 falsch”(396)이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이 이다를 죽인 사실도 뼈저리게 깨닫고는 소리내어 운다.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 때문에 그는 우는 것이다.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저질렀고, 자기는 그런 놈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프란츠가 우는 것이다. 이제 프란츠 비버코프는 자기 자신 때문에 우는 것이다.”

Er weint darüber, daß er leidet und was er erleidet, und auch über sich. Daß er dies getan hat alles und so gewesen ist, darüber weint Franz Biberkopf. Jetzt weint Franz Biberkopf über sich.(397f.)

미이찌가 죽은 것도 자기 때문임을 알고 프란츠는 몸부림을 치면서

반성한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녀를 잃게 되었는가. 내가 그녀를 라인홀트 놈에게 보여 주지 않았어야 했어, 내가 그놈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Warum hab ich sie nicht mehr. Hätt ich sie nicht Reinholden gezeigt, hätte ich mich nicht mit dem eingelassen.(398)

“끝장을 내 주는 자비로운 죽음 der gnädige, beendende (Tod)” (399)을 영접하기 위해 저녁에 두려워 떨며 일어나 앉아 있던 프란츠에게 위의 네 사람이 다시 오고, “심히 두려워 떨며 mit tiefem Beben”(399) 이들을 영접한 프란츠는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

“프란츠는 울고 또 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짐승이다, 괴물이다.”

Franz weint und weint, ich bin schuldig, ich bin kein Mensch, ich bin ein Vieh, ein Untier.(399)

바로 이날 저녁 프란츠는 죽고 “프란츠 카알 비버코프 Franz Karl Biberkopf”(404)라는 이름의 사나이로 부활한다.

“이 저녁시간에 예전에 짐꾼, 범죄자, 창녀기동서방, 살해자였던 프란츠 비버코프는 죽었다. 그 침대에는 다른 사람이 누워있었다.”

Gestorben ist in dieser Abendstunde Franz Biberkopf, ehemals Transportarbeiter, Einbrecher, Ludwig, Totschläger. Ein anderer ist in dem Bett gelegen.(399)

프란츠는 “금치산자 인정증명서 Jagdschein”(404)를 받고 감금되어 있던 부호정신병원에서 석방되어 다시 알렉산더 광장으로 돌아온다. 이 프란츠는 이 소설 서두 태겔 형무소에서 출소한 당시의 프란츠와는 전혀 다르다. “무기력한 kraftlos”(403) 그이지만, 가게나 집들이나 사람들을 “침착하게 ruhig”(404) 바라본다. 일 주일 뒤 함께 미이체의

묘를 찾아간 에바도 깜짝 놀랄 정도로 프란츠는 좋아졌다. 그는 울부짖거나 하지는 않고 툴립 한다발을 놓아두고는 십자가를 쓰다듬더니 이내 에바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난 것이다.(406)

미이체의 살인사건 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이 끝난 다음 자신에게 제공된 “중소규모의 공장 수위보조원 Hilfspostier in einer mittleren Fabrik”(409) 일자리를 프란츠가 받아들였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끝난다.

결론

천성이 착한 프란츠는 돈 없이는 착실하게 살기가 힘든 “한탄이 끊이지 않는 곳”에서 재봉사였던 애인 이다가 몸을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힘겹게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새로 생긴 이다의 애인 때문에 다투다가 이다가 내뱉은 “창녀의 꼬나불 Hurenbock” ‘매춘부 사냥꾼 Nuttenjäger’이라는 말에 “자존심이 강한 ehrempfindlich” 프란츠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다를 구타하여 죽이게 된다(85). 그 죄로 프란츠는 4년동안 형무소 생활을 했던 것이다.

출감한 프란츠는 화상을 입은 아이가 불을 두려워하듯이 다시는 감옥에 갈 일은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새 출발을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냉엄한 삶의 현실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었던 것이다.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오른팔을 잃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미이체마저 죽게 되지만, 프란츠는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불행들이 닥치는지 깨닫지 못한 채, 자살을 결심한다.

그러나 “죽음”과의 대면을 통해서 프란츠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겼음을 인식하고 회개함으로써, 새생명을 얻게 되고, 자그마한 공장의 수위보조원으로 취직한다.

위와 같은 프란츠의 삶은 순전한 여호와와의 종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던 욥이 따뜻한 위로의 말 대신 회개를 강요하는 세 친구와의 언쟁에서 죄없는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했지만,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고는 회개하여 처음

의 두 배나 되는 복을 받은 것과 많은 점에서 비슷함을 알 수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여지껏 실패한 한 남자의 운명 das Schicksal (...) eines bisher gescheiterten Mannes”²⁵⁾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은 큰 불행을 당할지라도 자신과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고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온갖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용되어 있어 통일성이 결여된 작품의 구성은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자체를 그렇게 어수선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 eine dunkle Allee” (409)이기에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한탄이 끊이지 않는 곳 Jammernest”(76)으로 본 작가의 관점에 상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상론은 다음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I. Werk und Aufsätze von Alfred Döblin:

Berlin Alexanderplatz. Die Geschichte vom Franz Biberkopf. Hrsg. von W. Muschg. Olten/Freiburg. 1961.

Unser Dasein. Hrsg. von W. Muschg. Olten/Freiburg. 1962.

Das Ich über der Natur. Naturphilosophische Betrachtungen. Berlin 1927.

Wissen und Verändern! Offene Briefe an einen jungen Menschen. Berlin 1931. München: dtv, 1987. S. 125-266.

II. Literatur über „Berlin Alexanderplatz,“ und seinen Autor:

Dieter Baacke, Erzähltes Engagement - Antike Mythologie in Döblins Romanen, in: Text+Kritik(1972), S. 27-38.

Hans-Peter Bayerdörfer, Der Wissende und die Gewalt. A.

25) Alfred Döblin, Nachwort zu einem Neudruck (1955), S. 414.

Döblins Theorie des epischen Werkes und der Schluß von „Berlin Alexanderplatz,, in: DVjs., 1970(44. Jg.), H. 2, S. 318-353.

Hans-Peter Bayerdörfer, Alfred Döblin, in: S. 137-157.

Peter Bekes, Alfred Döblin: Berlin Alexanderplatz, München: Oldenburg, 1997.

Elisabeth Endres, Döblin als Journalist, in: Text+Kritik(1972), S. 67-72.

Wolfgang Grothe, Die Theorie des Erzählens bei Alfred Döblin, in: Text+Kritik(1972), S. 7-26.

Hans Kaufmann, Krisen und Wandlungen der deutschen Literatur von Wedekind bis Feuchtwanger, Berlin u. Weimar: Aufbau, 1969, S. 440-449.

Roland Links, Alfred Döblin. Leben und Werk, Berlin: Volk und Wissen, 1984.

Fritz Martini, Alfred Döblin, in: Deutsche Dichter der Moderne, hg. v. Benno von Wiese, Erich Schmidt Verlag, 1975 (1965), S. 350-390.

Fritz Martini, Das Wagnis der Sprache, Stuttgart 1964, S. 336-372.

Bernd Matzkowski, Alfred Döblin: Berlin Alexanderplatz, Hollfeld: C. Bange, 1998.

Robert Minder, Alfred Döblin, in: Deutsche Literatur im 20. Jh. Band II : Gestalten, Bern u. München: A. Francke, 1967, S. 126-150.

Robert Minder, Begegnungen mit Alfred Döblin in Frankreich, in: Text+Kritik (1972), S. 57-66.

W. Muschg, Nachwort des Herausgebers, in: Alfred Döblin: Berlin Alexanderplatz, dtv 1990, S. 415 - 430.

W. Muschg, Alfred Döblin heute, in: Text+Kritik(1972), S. 1- 6.

Jürgen H. Petersen, Der deutsche Roman der Moderne, Stuttgart: Metzler, 1991, besonders S. 298-332.

Matthias Prangel, Alfred Döblin, Stuttgart: Metzler, 1973.

Boris Prem, Alfred Döblin: Berlin Alexanderplatz, Düsseldorf: Mentor, 1999.

B. Sandberg, Der Roman zwischen 1910 und 1930, in: H. Koopmann (Hg.), Handbuch des dt. Romans, Düsseldorf: Bagel, 1983, S. 489-509.

Albrecht Schöne, Alfred Döblin : „Berlin Alexanderplatz,, in: Der deutsche Roman, hrsg. v. Benno von Wiese, Düsseldorf 1963, Bd. 2, S. 291-325.

Thomas Siepmann, Alfred Döblin: Berlin Alexanderplatz, Klett, 1999.

Jürgen Stenzel, Mit Kleister und Schere - Zur Handschrift von "Berlin Alexanderplatz", in: Text + Kritik (1972), S. 39-44.

Viktor Zmegac, Alfred Döblins Poetik des Romans, in: Deutsche Romantheorien, hrsg. v. Reinhold Grimm, Frankfurt/M. 1968, S. 297-320.

김재민, 알프레트 되블린의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연구, 삼영사, 1986.

김환배, 알프레드 되블린의 소설에 나타난 이율배반,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4.

장성현, 소설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되블린의 언어비판의 예술적 형상화, 독일문학 62집 (1997), 136-156 쪽.

Zusammenfassung

**Alfred Döblins Roman
『Berlin Alexanderplatz』
und 『Das Buch Hiob』**

Song Sung-hoe

Alfred Döblins Roman 『Berlin Alexanderplatz』 kann man leichter verstehen, wenn man diesen Roman mit 『Das Buch Hiob』 vergleicht. In diesem Arbeit vergleiche ich Franz Biberkopf, den Protagonisten in A. Döblins Roman, mit Hiob in 『Das Buch Hiob』.

Mit dem Geld, das seine Geliebte Ida verdient hatte, lebte Franz Biberkopf in "Jammernest", im Osten Berlins der zwanziger Jahren. Wegen ihres neuen Geliebten kam es zwischen Ida und Franz, der von ihr auch noch mit den Worte 'Hurenbock' und 'Nuttenjäger' animiert wurde, zum Kampf, in dem sie schwer verletzt wurde. Deswegen war er vier Jahre in der Strafanstalt Berlin-Tegel. Nach der Entlassung wollte der gebrannte Franz Biberkopf anständig sein, aber das ging nicht. Er wurde von einem Freund betrogen, verlor einen Arm, und seine Geliebte Ida wurde erwürgt. Aber Franz Biberkopf verstand nicht, warum all dies geschehen war. Durch das Treffen mit dem Tod erkannte er endlich, daß ohne eigene Fehler all dies nicht hätte geschehen können, und er konnte als Hilfsportier in einer Fabrik am Alexanderplatz ein neues Leben führen.

Dieser Lebensweg von Franz Biberkopf gleicht dem Weg von Hiob in 「Das Buch Hiob」 .

Hiob lebte als Gottes untadeliger Knecht sehr glücklich. Eines Tages geschah es, daß er seine Söhne und Töchter, all seinen Besitz und seine Gesundheit verlor. Bei all dem sündigte Hiob nicht durch sein Wort. Aber Hiob fand keinen Trost. Sogar seine Freunde trösteten ihn nicht. Sie sagten, kein Mensch ginge ohne Schuld zugrunde. Also sollte er sich vom Unrecht lösen und seine Schuld bereuen. Sie kannten nämlich den wahren Sinn von Hiobs Leiden nicht, deswegen konnten sie über Gott nicht die Wahrheit sprechen. Gegen diese Freunde bestand er auf seiner Schuldlosigkeit vor Gott, damit sündigte er. Als Gott dem Hiob aber Antwort aus dem Gewittersturm gab und Hiobs Auge Gott sah, bereute er seine Schuld. Danach segnete Gott Hiob noch mehr als früher.

Diese Arbeit zeigt im Vergleich von Alfred Döblins Roman 「Berlin Alexanderplatz」 mit 「Das Buch Hiob」 , daß das größte Unglück zum Glück werden kann, wenn man sich und die Umstände genau betrachtet und seine eigenen Fehler erkennen und korrigieren kann.